

보시니 참 좋았다

우리 창세기 자비반을 소개합니다.

성서 봉사자 한 분과 일곱분의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자비반에 모였습니다. 저희 자비반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 많습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합니다.

봉사자님께서서는 저희의 공부를 도와주시기 위해 용인에서 오십니다. 처음 만나 낯설고 어색해하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과제물도 저희보다 잘해 오셔서 우린 우리보다 잘해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 봉사자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십니다. 형제님 두 분과 자매님 다섯 분을 합쳐 총 일곱 명의 신자가 계십니다.

형제님 두 분은 젊었을 때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은 성당에서 맡으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늘 평안한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또 자비반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다섯분의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영어 성경공부도 하시며 늦게 공부의 재미를 알아 가신다며 자신을 소개하신 환한 미소가 잘 어울리는 큰 언니 같은 자매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반을 맡아 어린 천사들과 늘 함께라서 행복하다며 자신을 소개하신 자매님, 늦둥이 초등학생일로 늘 바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겠다고 활짝 웃는 자매님, 성당에서 제대 봉사도 하시며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들들을 자랑하시며 쪽소리위하시는 자매님, 그리고 봉사와 사회생활에 모두가 바쁘시기에 자진하여 반장을 맡은 저... ..

이렇게 모두 일곱 명이 모여 봉사자님을 모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의 목상과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린 진실하고 솔직하게 목상과 대화도 하면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세계로 모두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만물을 오직 한마디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게' 하신 하느님.

구약성경의 첫머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 창세기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1과(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제14과(요셉을 이끄시는 하느님) 중에서 우리 자비반은 벌써 6과(성조아브람)를 끝내고 7과(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과제물과 목상준비도 열심히 해오십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린 맛있는 음식과 차를 나누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원교구 요당리 성지에도 모두 함께 다녀왔습니다.

작은 등불이 되라며 그리고 어떤 삶이 멋진 삶인가?

우리 모두 멋진 사람이 되자며 말씀하시는 강사님. 다시한번 나를 생각하며 되 돌아 볼 수 있는 말씀이었다. 강사님의 말씀도 감명 깊었고, 요당리 성당자체가 작품같이 예뻐서 인상적이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루였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반 첫 수업때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저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하시며 격려와 강박을 내려주신 서바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오

시는 성서 봉사자 한민섭 스테파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희망의 길벗이 되어 열심히 하느님 말씀을 배우고자 모인 우리 자비반.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둘러보시면서 흡족하시어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비반도 하느님께서 보시면 '보시니 참 좋았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

<창세기 자비반, 이순애 수산나>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 환경개선 봉헌금 (7 / 5 현재) | | |
|-----------------------|---|---------------|
| 이름 | | 100,000 |
| 총 | 누 | 계 |
| | | 163,999,000 원 |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7 / 5 현재) | | |
|---|---|--------------------|
| 총 | 누 | 계 |
| | | 87,950,000원 / 361명 |
|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봉 헌 예 목 | | 감사헌금 (7 / 5 현재) | | | | 교무금 납부 현황 | |
|-------------|------------|-------------------|-----------|-------|---------|------------|-------|
| 교 무 금 | 33,120,000 | 김 아네스 | 100,000 | 윤 소피아 | 50,000 | 총 세대수 | 3,817 |
| | | 임 스테파노 | 10,000 | 한 로사 | 100,000 | | |
| 주일 봉헌금 | 14,167,520 | 이 프란치스코 | 100,000 | 김 데레사 | 100,000 | 총 납부세대 | 1,176 |
| | | 박 아우구스티노 | 1,000,000 | 이재영 | 100,000 | 지난주 납부세대 | 12 |
| 성수 후원금(11건) | 727,000 | 권 미카엘라 | 100,000 | - | - | 지난주 납부율(%) | 30.8% |
| | | 합 계: 1,660,000원 | | | | | |